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1, Vol. 23, No. 3, 655-670

한국판 부부적응척도 단축형의 타당화*

조 현 최 승 미 오 현 주 권 정 혜†
고려대학교 부부상담연구소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부부적응척도(DAS)는 부부의 결혼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있어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다차원으로 구성된 척도이다. 해외에서는 부부 상담 장면에서 부부 관계의 질이나 만족도를 단일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부부적응척도의 단축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부부적응척도는 결혼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상담 장면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단축형과 관련된 연구는 미미한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부부 95쌍 및 상담 경험이 있는 부부 69쌍을 대상으로 부부적응척도,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 캔사스 결혼만족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선행 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는 3가지 단축형에 대한 내적일치도, 수렴타당도, 차이검증 및 ROC curve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내적일치도와 수렴타당도에서는 3가지 유형 모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ROC curve 분석의 결과를 고려할 때, DAS-10문항이 가장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결과에 대한 논의와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요어 : 부부적응척도, 단축형, 신뢰도, 타당도

---

* 본 연구는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권정혜,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
Fax : 02-3290-2537, E-mail : junghye@korea.ac.kr

www.kci.go.kr

최근 2009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결혼 건수는 약 31만 건으로 지난 2008년에 비해 1만 8천 여 건이 줄어든 반면에, 이혼 건수는 12만 4천 건으로, 조이혼율은 2.5건, 유배우이혼은 5.1건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의 주된 사유로는 성격차이 46.6%, 경제문제 14.4%, 배우자 부정 8.3%, 가족 간 불화 7.4%, 정신적·육체적 학대 5.0%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2009년에 이혼한 부부 중 20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는 55.2%로 나타났다. 이혼율이 2003년을 정점으로 점진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건수가 전체 이혼 건수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가족관계에서 부부관계를 그만큼 더욱 중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에는 부부관계가 안 좋더라도 자녀를 위해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자녀 때문에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부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환경과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가정을 형성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아울러 핵가족 구조에서 가족의 중심이 되는 부부관계의 질 또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부부의 결혼만족도 또는 부부관계의 질을 조작적 정의를 통해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결혼적응, 결혼만족, 결혼 질 등의 용어가 혼용되기도 하고 구분되기도 하면서 사용되어 왔다.

결혼만족 개념은 전형적으로 배우자와 관계에 대한 개인의 태도로서 사용되었으며(Roach, Frazier, & Bowden, 1981), 결혼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인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결혼적응 개념은 조화롭고 기능적인 부부관계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일관되게 사용되어 왔다(김득성, 1989 재인용; Locke, 1951; Spanier, 1976; Spanier & Cole, 1976). 잘 적응하는 관계는 배우자 간에 서로 자주 상호작용하고, 중요한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 거의 불일치가 없으며, 솔직하게 서로에 대해 대화하며, 그리고 서로 만족스러운 방법으로 불일치를 해결하는 것이다(Locke & Wallace 1959; Spanier, 1976).

결혼적응 개념은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으로 부부관계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Spanier(1976)는 결혼적응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하나는 '과정'의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상태'의 관점에서 탐색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상태'는 다시 두 가지로 정의 되는데, 첫 번째는 특정 시점의 적응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계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두 가지 관점을 종합해 보면 결혼적응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부부관계에서 어느 한 시점의 적응정도와 적응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와 양상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부의 결혼만족 또는 결혼 적응은 이론적 입장에 따라 1차원적 접근을 주장하는 연구자들과 다차원적 접근을 주장하는 연구자들로 크게 대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온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1차원적 접근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결혼 만족은 결혼관계에 대한 개인의 총체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차원적 접근을

www.kci.go.kr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적응과 만족을 더 넓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았다. 다차원적 접근에 의하면 관계의 질은 관계와 배우자에 대한 만족, 동질감, 원만한 의사소통, 갈등의 부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Spanier & Lewis, 1980).

Spanier(1976)는 부부적응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면서 부부적응을 연속선상에서 어느 한 시점의 상태를 나타내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보았고, 부부간의 불일치로 인한 곤란의 정도, 부부사이의 긴장과 개인적 불안, 부부간의 만족도, 부부간의 응집도, 부부 사이에 중요한 문제에 대한 일치도 등 다차원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개발된 부부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 이하 DAS)는 비록 몇몇 비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개발된 이후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부부의 결혼 생활의 적응 정도를 측정하는 자기 보고식 평가도구이며(South, Krueger, Iacono, 2009), 국내의 부부관계 및 결혼 생활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도 부부의 결혼 만족도 및 부부생활의 적응 정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척도이다(김은지와 박재호, 2010; 도복늠, 2004, 모의회와 김재환, 2002; 서혜석, 2005; 정윤경과 최지현, 2010). DAS는 32 문항으로 비교적 짧기는 하지만, 선별 용도나 치료 상황에서 부부관계의 변화 정도를 중간 점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문항이 길다는 지적이 있어왔다(Hunsley, Pinsent, Lefebvre, James-Tanner, Vito, 1995). 이에, 다양한 단축형들이 몇몇 연구를 통해서 제안되었다. Sharpley와 Cross (1982)는 판별분석, 문항분석, 요인분석을 이용해서 8, 10, 11, 25, 27, 28 번의 6개 문항이 DAS 32문항의 이용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한 문항만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31번 문항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하였다. Kurdek(1992)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16~23번 문항과 31, 32번 문항의 총 10문항이 DAS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몇몇 단축형들이 제안되고 있으나 세부사항들은 보고되지 않고 있었다(Hall & Kiernan, 1992; Russell, 1989; Saarijarvi, 1991; Saarijarvi, Hyyppa, Lehtmen, & Alanen, 199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보고되고 있는 Sharpley와 Cross(1982)가 제안한 6문항과 6문항에 31번 문항을 추가한 7문항, Kurdek(1992)이 제안한 10문항의 단축형에 대해 신뢰도와 타당도 등의 통계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혼숙려기간 제도의 도입으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적 개입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이혼위기 부부를 위하여 다양한 상담적 개입 방법의 확립 및 적용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박성주, 2011).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핵가족 제도에서 중심이 되는 부부관계의 안정이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부부상담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질 것으로 여겨진다(조성경, 최연실, 2006). 부부상담 또는 부부관계의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많은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할 수도 있겠으나 전반적인 부부관계의 만족도나 적응 정도를 파악하고 상담을 통한 변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축형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된 DAS의 단축형 문항들이 몇몇 제안되고 있으나 그 문항들 사이에 비교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며(Hunsley et al, 1995), 국내에서는

www.kci.go.kr

이와 같은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시도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연구에서 사용된 결혼만족도 척도는 외국의 측정도구를 번안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특히, DAS와 같이 다차원 개념을 기반으로 한 척도는 문화마다 하위요인이 달라지는 양상이 보고되고 있어 사용에 좀 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단일 요인을 가정하는 단축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하위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이 달라지는 문제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소에서는 부부상담센터에 방문한 부부와 지역사회의 일반적인 부부를 대상으로 DAS 및 부부관계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실시하게 한 뒤에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임상장면에서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단축형 척도를 개발해 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상담 경험이 없는 부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101쌍의 부부자료가 수집되었으나, 설문지에 부부문제로 상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자료는 결과에서 제외하였고, 95쌍 190명의 부부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더불어, ROC 커브 분석을 위해 부부상담센터를 방문한 69쌍 138명의 내담자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최종 분석에 포함된 수검자의 주요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빈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평균 연령은 남편 45.95세(SD=12.99)와 부인 44.46세(SD=14.33)였으며, 평균 결혼 기간은 186.58(SD=109.72)개월이었다. 교육 정도(χ^2= 5.05, *ns*)와 경제수준(χ^2=4.70, *ns*)에서 성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부인들이 경제수준을 남편에 비해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1. 일반부부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남편	부인
	n(%)	*n*(%)
교육정도		
초졸	0 (0.0)	1 (1.1)
중졸	1 (1.1)	1 (1.1)
고졸	13 (13.8)	20 (21.1)
전문대졸	8 (8.5)	13 (13.7)
대졸	51 (54.3)	45 (47.4)
대학원졸 이상	21 (22.3)	15 (15.8)
경제수준		
150만원 이하	4 (4.3)	10 (11.0)
200~300만원	14 (15.1)	18 (19.8)
300~500만원	35 (37.60	32 (35.2)
500~1,000만원	27 (29.0)	23 (25.3)
1,000만원 이상	13 (14.0)	8 (8.8)

상담 경험이 있는 부부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빈도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평균 연령은 남편 37.19세(SD=7.26)와 부인 35.17세(SD=6.60)였으며, 평균 결혼 기간은 89.77(SD=95.72)개월이었다. 교육 정도(χ^2= 4.27, *ns*)와 경제수준(χ^2=4.58, *ns*)에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표 2. 상담부부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남편	부인
	n(%)	*n*(%)
교육정도		
초졸	0 (0.0)	0 (0.0)
중졸	0 (0.0)	0 (0.0)
고졸	10 (14.9)	8 (11.8)
전문대졸	3 (4.5)	3 (4.4)
대졸	38 (56.7)	49 (72.1)
대학원졸 이상	16 (23.9)	8 (11.8)
경제수준		
150만원 이하	2 (3.0)	2 (3.3)
200~300만원	13 (19.4)	21 (34.4)
300~500만원	31 (46.3)	26 (42.6)
500~1,000만원	15 (22.4)	8 (13.1)
1,000만원 이상	6 (9.0)	4 (6.6)

측정도구

부부적응척도(DAS)

Spanier(1976)가 제작한 DAS를 이민식과 김중술(1996)이 우리말로 번안한 것으로 전문가와의 토론을 거쳐 우리말 표현에 가깝게 문장을 다듬어 완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항에 결혼생활에서 겪는 불일치로 인한 곤란, 결혼만족도, 부부간의 응집도 등을 측정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중치가 다른 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문항에 따라 0에서 1 혹은 0에서 6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DAS에서 산출되는 점수는 전체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결혼적응도 점수와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일치도(Dyadic Consensus), 응집도(Dyadic Cohesion), 만족도(Dyadic Satisfaction), 애정표현(Affectional Expression) 4개의 하위척도 점수들로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결혼적응도와 전체 32 문항에서 일부 문항을 뽑아서 각각 6 문항, 7문항, 10문항으로 구성된 단축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K-MSI)

Synder(1979)에 의해 개발된 결혼만족도 검사는 진위형으로 응답하는 총 28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타당도 척도와 1개의 전반적인 불만족 척도, 9개의 결혼생활 특수영역에서의 만족을 재는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는 이것을 우리 실정에 맞게 문항을 추가하여 최종 160문항을 선택하여 만든 검사이다(권정혜와 채규만, 1999). 각 척도의 명칭은 비일관적 반응 척도, 관습적 반응 척도, 전반적 불만족 척도,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척도, 공격행동척도, 공유시간 갈등 척도, 경제적 갈등 척도, 성적 불만족 척도, 관습적 성역할 태도 척도, 원가족 문제 척도,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 척도, 자녀 불만족 척도, 자녀 양육 갈등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하위 척도 중 전반적 불만적 척도(GDS)를 사용하였다.

캔사스 결혼만족도 검사(KMSS)

Schumm, Nichols, Schectman와 Grigsby(1983)가 개발한 결혼만족도 검사로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는 김득성(1989)이 타당도 연구를 실시하였다. 정현숙(1997)은 부모-자녀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고려하여 "당신은 아버지(어머니)로서 남편(아내)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

www.kci.go.kr

여 총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현숙(1997)이 제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응답은 '대단히 불만족'에서 '대단히 만족'에 이르는 7점 척도로 이뤄진다. 내적일치도 계수는 .95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2009년 12월부터 1월까지 눈덩이 표집 및 임의 표집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단축형 척도들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일치도를 살펴보았으며, 수렴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다른 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또한 부부문제로 상담을 받은 부부와 상담경험이 없는 일반 부부를 가장 잘 분별할 수 있는 척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최적 절단점을 추정하고 변별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ROC커브를 살펴보았다. ROC커브란 절단 값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민감도와 '1-특이도'로 그려지는 곡선을 의미한다. 민감도(sensitivity)란 특정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을 선별도구를 통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로 정확하게 선별하는 정도이고, 특이도(specificity)란 특정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들을 선별도구를 통해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들로 선별하는 정도를 말한다. ROC 커브 아래의 면적(Area Under Curve; AUC)은 변별 효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면적이 넓을수록 더 효용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양성예측도(PPV)는 변별 결과가 문제가 있다고 판정된 사례 중에 실제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변별하는 정도를 말하며, 음성예측도(NPV)는 변별 결과가 문제가 없다고 판정된 사례 중에 실제로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변별하는 정도를 말한다(박주원, 2009). 마지막으로 가장 유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단축형의 타당화를 위하여 차이검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DAS 단축형의 신뢰도

DAS 전체 문항과 단축형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내적일치도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각 척도별 내적일치도

	대상		
	남	여	전체
DAS-32문항	.93	.91	.92
DAS-10문항	.79	.86	.83
DAS-7문항	.86	.68	.75
DAS-6문항	.84	.62	.71

여성인 경우에 DAS-7문항과 DAS-6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내적일치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른 차이 역시 DAS-32문항이나 DAS-10문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DAS 단축형의 수렴 타당도

단축형 부부적응척도의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다른 검사들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표 4에 제시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DAS 단축형들이 KMSS와는 .58에서

www.kci.go.kr

표 4. DAS 단축형과 다른 결혼만족도 검사와의 상관

		DAS Form				
		KMSS	K-MSI(GDS)	DAS-32문항	DAS-10문항	DAS-7문항
여	K-MSI(GDS)	-.80				
	DAS-32문항	.74	-.73			
	DAS-10문항	.77	-.78	.87		
	DAS-7문항	.63	-.61	.88	.68	
	DAS-6문항	.58	-.57	.85	.62	.99
남	K-MSI(GDS)	-.74				
	DAS-32문항	.78	-.71			
	DAS-10문항	.78	-.72	.85		
	DAS-7문항	.75	-.70	.90	.75	
	DAS-6문항	.71	-.68	.88	.69	.99
전체	K-MSI(GDS)	-.78				
	DAS-32문항	.76	-.72			
	DAS-10문항	.78	-.75	.86		
	DAS-7문항	.68	-.65	.89	.71	
	DAS-6문항	.64	-.61	.86	.69	.99

.77 사이에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MSI의 전반적 불만족 척도와는 -.57에서 -.78 사이에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는 DAS 단축형들이 KMSS와는 .71에서 .78 사이에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MSI의 전반적 불만족 척도와는 -.68에서 -.72 사이에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전체에서는 DAS 단축형들이 KMSS와는 .64에서 .78 사이에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MSI의 전반적 불만족 척도와는 -.61에서 -.75 사이에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DAS 단축형의 ROC 커브 분석

DAS 단축형이 부부만족도가 떨어지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잘 변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ROC 커브 분석의 AUC 면적, 예민도, 특이도, 위음성률, 위양성률 등을 살펴보았다.

표 5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남성의 경우 DAS-10문항에서 절단점이 33점 이상일 때, sensitivity(.80)와 specificity(.81)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DAS-10문항에서 절단점이 30점 이상일 때, sensitivity(.90)와 specificity(.9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의 경우 DAS-10문항에서 절단점이 32점 이상일 때, sensitivity (.83)와 specificity(.8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www.kci.go.kr

표 5. 단축형들의 ROC 분석 결과_남

		AUC	(CI)	Cutoff score	Sensitivity	Specificity	PPV	NPV	LR+	LR-
여	DAS-32문항	.91	.86-.95	≥88	.84	.84	.79	.88	5.32	.19
	DAS-10문항	.96	.94-.99	≥30	.90	.90	.86	.92	8.54	.11
	DAS-7문항	.88	.83-.93	≥18	.80	.76	.71	.84	3.29	.27
	DAS-6문항	.86	.80-.91	≥15	.74	.80	.71	.80	3.34	.33
남	DAS-32문항	.86	.80-.91	≥93	.77	.77	.71	.82	3.32	.30
	DAS-10문항	.88	.83-.93	≥33	.80	.81	.75	.85	4.21	.25
	DAS-7문항	.81	.74-.87	≥20	.74	.74	.67	.80	2.81	.35
	DAS-6문항	.78	.71-.85	≥17	.71	.72	.64	.77	2.50	.40
전체	DAS-32문항	.87	.84-.91	≥91	.78	.79	.73	.83	3.72	.28
	DAS-10문항	.92	.89-.95	≥32	.83	.85	.80	.88	5.65	.20
	DAS-7문항	.84	.80-.88	≥19	.75	.75	.68	.81	2.98	.33
	DAS-6문항	.82	.77-.86	≥16	.73	.73	.66	.79	2.70	.38

AUC=Area under ROC Curve; CI=confidence interval; PPV=probability that the disearse is present when the test is positive; NPV=probability that the disease is not present when the test is negative; LR+=Likelihood ratio positive; LR-=Likelihood ratio negative

상담 경험 유무에 따른 DAS-10문항 단축형의 차이 검증

상담 경험이 없는 경우와 상담 경험이 있는 경우 DAS-10 문항 및 DAS-32 문항의 점수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상담경험 유무에 따른 평균차이를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다.

표 6. 상담 경험 유무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 및 t값

	여			남			전체		
	상담경험		t	상담경험		t	상담경험		t
	무	유		무	유		무	유	
DAS-32 문항	102.48 (18.18)	68.55 (17.81)	11.90***	105.55 (17.56)	81.55 (15.18)	9.14***	104.01 (17.90)	75.05 (17.73)	14.53***
DAS-10 문항	36.01 (5.67)	20.77 (6.34)	16.16***	37.08 (5.64)	27.56 (6.03)	10.37***	36.55 (5.67)	24.16 (7.04)	17.04***

*** $p < .001$

www.kci.go.kr

표 6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DAS-10문항 및 DAS-32 문항 모두에서 평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 경험이 없는 경우에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DAS-10문항에서 평균 차이가 DAS-32문항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t=16.16, p<.001), 남성의 경우에도 DAS-10문항에서 평균 차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t=10.37, p<.001).

DAS-10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DAS-10문항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KMO(Kaiser-Meyer-Olkin) 적합성 지수는 .89로 문항 간 상관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며, Barlett 검증 결과는 χ^2(45, N=328) = 1816.97, p<.001로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절한 요인 수를 탐색하기 위하여 주축분해법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그 결과 고유치(eigen value)가 1.0 이상인 요인이 2개 도출되었으나 그림 1의 Scree 도표를 이용하여 고유치의 감소 정도를 고려했을 때에는 1개 요인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인수 1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요인수를 1로 지정하고 최대우도법 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χ^2와 RMSEA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χ^2(35, N=328) = 325.41, p<.001로 산출되었고, RMSEA= .16으로 나타나 요인수 1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임상 장면에서 부부관계의 적응정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부부적응척도(DAS) 단축형의 신뢰도와 타당도 및 ROC 분석 등을 통한 척도 이용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단축형이 내적일치도나 다른 검사와의 상관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OC 분석 등을 통한 변별능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 조금씩 통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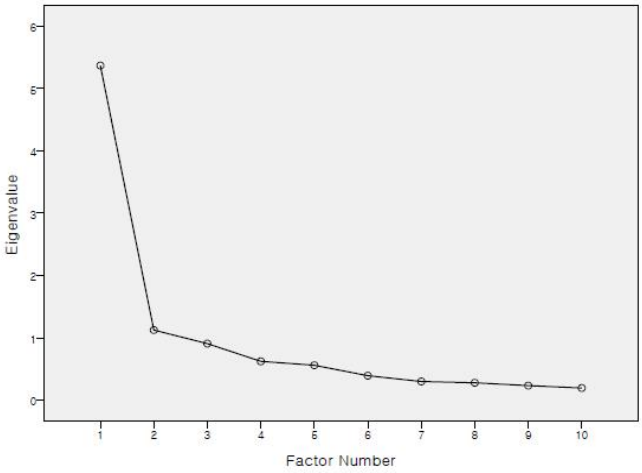

그림 1. DAS-10문항의 스크리 도표

www.kci.go.kr

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남녀 각각에서 DAS-10문항이 DAS-32문항보다 더 나은 통계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각 척도의 내적일치도에서는 DAS-32문항이 남, 녀, 전체 각각 .93, .91, .92로 DAS-10문항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렴타당도에서는 DAS-10문항과 KMSS 및 K-MSI(GDS)의 상관이 각각 .77과 -.78로 나타나 DAS-32문항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ROC curve 분석에서 여성의 경우 DAS-32문항의 sensitivity와 specificity는 각각 .84와 .84였던 반면에 DAS-10문항의 sensitivity와 specificity는 각각 .90과 .90으로 더 높은 변별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에도 DAS-32문항의 sensitivity와 specificity는 각각 .77과 .77였던 반면에 DAS-10문항의 sensitivity와 specificity는 각각 .80과 .81로 더 높은 변별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전체에 대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었으며, 평균차이 검증에서도 여성의 경우 DAS-32문항에서 t값이 11.90이었던 반면에 DAS-10문항에서는 t값이 16.16으로 더 크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에는 DAS-32문항에서 t값이 9.14였던 반면에 DAS-10문항에서는 t값이 10.37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체적인 결과를 고려할 때, DAS의 전체 문항을 대신하여 DAS-10문항이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Hunsley 등(1995)은 DAS-10문항과 DAS-7문항이 단 1문항에서만 중복되며, 여러 가지 통계치를 고려할 때 두 단축형 모두 전체 문항을 대체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DAS-10문항의 경우 DAS의 하위 척도 중 만족도(Dyadic Satisfaction)의 문항과 일치하고 있는데, Kurdek (1992)은 DAS의 각 하위 요인이 측정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DAS-10문항 척도에 해당하는 만족도(Satisfaction) 하위척도가 부부관계의 전반적인 만족과 관여정도를 잘 나타내 준다고 보고하고 있어 임상 장면에서 전반적인 부부만족도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DAS-10문항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DAS-10문항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수 1이 통계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χ^2=325.41, p<.001, RMSEA= .16),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 여러 가지 단축형을 비교하여 보다 효용성이 좋은 단축형을 탐색하는데 있기 때문에 다른 분석결과들이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민식과 김중술(1996)의 DAS 표준화 예비 연구에서 추출된 요인구조가 Spanier(1976)의 요인구조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해외의 다른 연구에서도 Spanier가 확인한 4개 요인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South, Krueger, Iacono, 2009),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DAS-10문항의 요인구조를 철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부부적응척도의 단축형이 활용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ROC 커브 분석을 위해 부부상담센터의 방문 경험 유무를 가지고 집단을 분류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소를 방문할 가능성이 높지만 보다 원만한 부부관계를 위하여 상담소를 방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담소 방문 경험의 유무가 부부 관계의 파경을 의미하는 명확한 행동적인 준거가 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다만, 언급한 것처럼 부부가 스스로 문제를

www.kci.go.kr

해결하기 어려울 때 상담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집단 분류 기준으로 상담소의 방문 유무를 이용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편의표집에 의해 표본이 구성되어 인구통계학적변인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제한되며 연구 결과가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추후 다양한 표본에서 연구 결과의 재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몇몇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산출되고 있고 부부간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를 잘 변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부적응척도의 단축형이 한국에서도 충분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권정혜, 채규만 (1999).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18(1), 123-139.

김득성 (1989). 결혼 만족도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85-94.

김은지, 박재호 (2010). 부부간 유사성 및 일치도가 커뮤니케이션과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403-423.

도복늠 (2004).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가족기능과 정신건강 및 부부적응. 정신간호학회지, 13(4), 392-400.

모의회, 김재환 (2002). 의사소통과 부부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887-900.

박성주 (2011). 이혼위기 부부를 위한 문제해결 단기상담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1), 67-78.

박주원 (2009). 혼합 정규분포의 베이지안 ROC 곡선 추정.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혜석 (2005). 자아존중감 및 부부적응 향상을 위한 가정폭력행위자의 부부집단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0(1), 25-41.

이민식, 김중술 (1996). 부부적응척도(Dyadic Adjustment Scale)의 표준화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5(1), 129-140.

정윤경, 최지현 (2010). 부모의 부부관계의 질과 자녀세대의 부부적응 및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331-353.

정현숙 (1997). 결혼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조성경, 최연실 (2006). 결혼초기 기혼남녀의 원가족특성과 갈등 및 상담요구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17-35.

통계청 (2010). 2009 인구동태 통계연보. 서울: 통계청.

Arthur, J. N. (1982). A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panier Dyadic Adjustmen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3), 739-742.

Carey, M. P., Spector, I. P., Lantinga, L. J., Krauss, D. J. (1993). Reliability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5*(2), 238-240.

Elise, B. (1982). A Confirmatory Analysis of the Dyadic Adjstmen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3), 731-738.

www.kci.go.kr

Hall, L. A. & Kiernan, B. S. (1992). Psychometric Assessment of a Measure of the Quality of Primary Intimate Relationships. *Health Values, 16*(4), 30-39.

Hansen, G. L. (1985). Perceived threats and marital jealous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8*(3), 262-268.

Hunsley, J., Best, M., Lefebvre, M., Vito, D. (2001). The Seven-Item Short Form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Further Evidence for Construct Validity. *The American Jornal of Family Therapy*, 29(4), 325-336.

Hunsley, J., Pinsent, C., Lefebvre, M., James-Tanner, S., Vito, D. (1995). Construct Validity of the Short Forms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Family Relations, 44*(3). 231-237.

Kurdek, L. A. (1992). Dimensionality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Evidence From Heterosexual and Homosexual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6*(1), 22-35.

Locke, H. J. (1951). Predicting Adjustment in Marriage: A comparison of a Divorced and Happily Married Group. New York: Halt

Locke, H. J. & Wallace, K. L. (1959). Short Marital-Adjustment and Prediction Tests: Their Reliability and Validit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1*(3), 251-255.

Prouty, A. M., Markowski, E. M., Barnes, H. L. (2000). Using the Dyadic Adjustment Scale in Marital Therapy: An Exploratory Study. *The Family Journal, 8*(3), 250-257.

Roach, A. G., Frazier, L. P., & B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3), 537-546

Russell, G. (1989). Work/Family Patterns and Couple Relationships in Shared Caregiving Families. *Social Behaviour, 4*(4), 265-283.

Saarijarvi, S. (1991). A Controlled Study of Couple Therapy in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s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Health Attitudes.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5*(2-3), 265-272.

Saarijarvi, S., Hyyppa, M. T., Lehtmen, & Alanen, E. (1990). Chronic Low Back Pain Patient and Spouse.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34*(1), 117-122.

Sabourin, S., Valois, P., Lussier, Y. (2005).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Brief Version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with a Nonparametirc Item Analysis Model. *Psychological Assessment, 17*(1), 15-27.

Schumm, W. R., Nichols, C. W., Schectman, K. L., & Grigsby, C. C. (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s, 53*(2),567-572.

Sharpley, C. F., Cross, D. G. (1982). A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Spanier Dyadic Adjustment Sca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3), 739-741.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4), 813-823.

South, S. C., Krueger, R. F., Iacono, W. G. (2009). Factorial Invariance of the Dyadic Adjustment Scale across Gender. *Psychological Assessment, 21*(4), 622-628.

www.kci.go.kr

Spanier, G. B. (1976).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1), 15-28.

Spanier, G. B., Cole, C. L. (1976). Toward Clar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Marital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6*(1), 121-146.

Spanier, G. B., Lewis, R. A. (1980). Marital Quality: A review of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825-839.

원 고 접 수 일 : 2011. 5. 14
수정원고접수일 : 2011. 7. 10
게 재 결 정 일 : 2011. 8. 11

www.kci.go.kr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11, Vol. 23, No. 3, 655-670

Validity of the Short Forms of the Korean Dyadic Adjustment Scale

Hyun Cho **Seung-Mi Choi** **Hyun-Joo Oh** **Jung-Hye Kwon**

Korea University Marital Counseling Center

The Department Psychology of Korea University

Dyadic Adjustment Scale is the most commonly used self-report measure, in which marital quality was assumed to have multi-dimensions. Many previous studies proposed and evaluated short versions of the DAS to measure a marital quality efficiently in clinical situation. However, no short version of the DAS was developed and validated in Korea even though the DAS is a commonly used measure of marital satisfaction.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liability, validity, and ROC curve of three short forms that other researchers suggested. Findings in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the all three versions were reliable and effective in measuring. a marital quality ROC curve analysis demonstrated that the 10-item version showed closer utility in measure a marital quality to that of the DA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Dyadic Adjustment Scale, Short Form, Reliability, Validity

www.kci.go.kr

부록 A : 부부적응척도(DAS) 단축형 문항

DAS-6 단축형 문항

당신은 다음 각 문항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 배우자와 얼마나 마음이 맞습니까? (0점 '항상 불일치'에서 5점 '항상 일치'의 6점 척도)

8. 생활철학
10.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목표
11. 함께 지내는 시간의 길이

다음의 문항에 제시된 사건들이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간에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0점 '전혀 없다'에서 5점 '하루에 한번 이상'의 6점 척도)

25. 활기 있는 의견교환
27. 어떤 문제에 대해 신중히 토론하기
28. 어떤 계획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

DAS-7 단축형 문항(DAS-6 단축형 문항에 31번 문항 추가)

31. 당신이 결혼 생활에서 느끼는 행복의 정도는?
0 극히 불행하다. 1 상당히 불행하다. 2 약간 불행하다. 3 행복하다(대부분의 부부들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 4 매우 행복하다. 5 극히 행복하다. 6 완벽하게 행복하다

DAS-10 단축형 문항

다음의 문항에 제시된 사건들이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간에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전혀 그렇다'의 6점 척도)

16. 이혼이나 별거, 또는 서로 간의 관계를 끝내려고 생각하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17. 서로 싸움을 하고 난 뒤에 당신이나 혹은 당신의 배우자가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18.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 사이의 모든 일들이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 당신의 배우자를 믿고 있습니까?
20. 당신이 결혼하신 것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21.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말다툼을 하십니까?
22.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는 상대방의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23. 당신의 배우자에게 키스를 하십니까?
0. 전혀 안한다. 1. 거의 안한다. 2. 가끔 한다. 3. 거의 매일 한다. 4. 매일 한다.

www.kci.go.kr

31. DAS-7 단축형 문항의 31과 동일.

32. 다음의 내용들 중에 당신 부부의 미래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바를 가장 잘 나타낸 보기 **하나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0. 우리의 부부 관계는 결코 성공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다.**

1. 나는 우리의 부부 관계가 성공적이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지금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현재 기울이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을 들이고 싶지 않다.**

2. 나는 우리의 부부 관계가 성공적이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노력 이상은 할 수 없다.**

3. 나는 우리의 부부 관계가 성공적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꺼이 할 생각이다.**

4. 나는 우리의 부부 관계가 성공적이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생각이다.**

5. 나는 우리의 부부 관계가 성공적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라면**무슨 일이라도 할 생각이다.**

www.kci.go.kr